

윤리경영사무국

인간존중을 위한

직장인의 자세

상호신뢰하는 직장문화만들기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목차

- 1 인간존중 위반 신고 현황
- 2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 3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4 딜레마 상황 풀어보기

인간존중 위반 신고 현황

남의 일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직원 간 갈등

'20년 인간존중 위반으로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된 건은 총 30(성희롱9, 괴롭힘21)건이었습니다.

'19년 직장내 괴롭힘관련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직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론으로 아는것" 에 그치지 않고,
적극 실천 합니다.

1 부하직원이 아닌
직장동료로 인식

소속직원을 나의 부하직원으로
생각하게 되면 말이나 행동이
필터링 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 방식과 의견이 전부가 아니니
동료로서 존중해 주세요.

2 편하고 친한
동료일수록 배려깊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언어
및 행동에 더 조심해야 해요.
친하다는 이유로 자칫 실수를
하지는 않았나 항상 되새기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해요.

3 나와 다름을 인정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직책이 있듯
다양한 사고는 당연하니까요.
서로 신뢰하고 경청해주세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표출합니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하기!

괴롭힘 딜레마 상황

갑작스러운 현장 돌발로 인해 주말에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 외 출근 강요인거 같은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정상적인 수면을 못했고,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닌 돌발업무 처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왜 하필 난가 싫어" 심신이 괴로웠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일까요?

갑작스러운 돌발로 주말출근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원래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며,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성희롱 딜레마 상황1

최근 한 직원이 다이어트를 하고 난 후 살이 쪽 빠졌어요.
그래서 "○○씨~ 몸매 좋아졌네?"라고 말하는것도 성희롱 인가요?



말을 하기에 앞서 '이 말을 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하지마세요. 상대방은 불쾌할 수 있고, 성희롱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등은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또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감각을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며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딜레마 상황2

소속 직원 중 한명이 2분기에 큰 성과를 올렸어요.
격려차원으로 가볍게 어깨를 툭툭 하고 쳤는데, 이것도 성희롱 인가요?



격려, 응원 등의 표현은 '언어적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터치한 부위가 성적 민감도 내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격려나 위로 또는 친근감의 표시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위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신체접촉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며, 문제제기 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포스코 그룹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각자 다를지라도
모두가 원하는 회사 생활은 존재합니다.

잘~ 굴러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봐요!

